

내일의 雄飛를 향해 달리고 있다

金 乾 洽 <大韓石油協會 · 弘報室長>

일찌기 1964년에 綜合精製工場으로 兪足한 極東石油
는 그 設立 및 建設過程에서 民族資本의 자세와 意志
를 강하게 表現하고 있다.

현재 日産 1万배럴의 精油施設과 潤滑油제조시설을
갖고 있으며, 지난 81년에 日産 6万배럴의 原油精製
시설 増設認可를 받아 84年末 完工을 목표로 推進中이
다.

極東石油는 來日의 도약을 위해 勞使가 혼연일체로
邁進하고 있으며 지난 77년에는 厚生福祉 最優秀業体
로 大統領표창을 받기도 했다.

2 월도 하순, 봄이 오는 길목 釜山 앞바다에는
春色이 완연하다. 釜山港 東岸에 자리잡고 있
는 極東石油 釜山精油工場은 따사로운 봄의 입김 속에
서 내일의 비약을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다.

五六島가 바다라 보이는 釜山市 南区 龍塘洞 山 76,
7만여평의 대지 위에 세워진 極東石油 釜山 精油工場
은 현재 시설능력이 日産 1만배럴로 国内 最小규모이
지만, 일찌기 1964년도에 민간 석유류 종합정제공장으로
兪足하여 각종 석유류제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
가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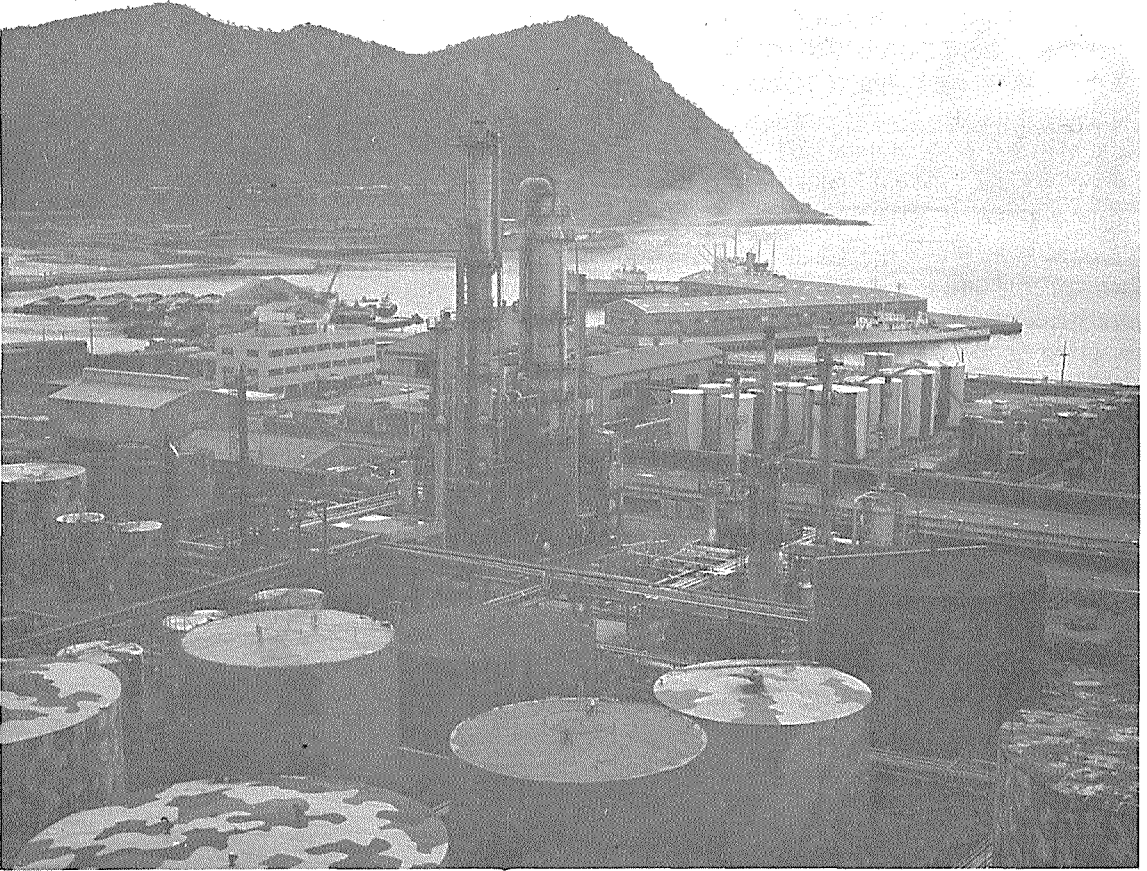
極 東石油가 設立된 것은 지난 64년 11월 19일 당
시 국내 潤滑유 전문 제조업체인 極東精油工
業(株)등은 潤滑유의 원료 공급을 一切 日本에 依存하
고 있었는데, 이 취약점을 利用하여 日本商社들이 粗
油價格을 수시로 올리는 등 횡포를 부리자, 이에 對抗
하여 国内 潤滑유 생산업체에 良質의 粗油를 供給하기
위한 特殊 精油工場을 設立하여 粗油의 수입대체 효과
를 기하는 한편, 수입에만 의존하여 오던 기타 石油類
製品도 직접 생산 공급하게 되었다.

특히 極東石油는 그 設立 및 建設過程에서 순수 민
족자본에 의하여 設立, 建設된 精油会社로서 회사의 심
벌마크도 엽전 모양으로 우리 資本과 기술로 이끌어가
는 民族資本의 자세와 의지를 강하게 表現하고 있다.

그 후 極東石油는 계속 시설확충을 추진, 66년 11월
에는 ABA시설을 준공하고, 67년 8월에는 유제아스
팔트시설, 68년 8월에는 MEK탈납장치를 준공했다.

68년 9월에는 世界 굴지의 메이저인 英國 로
얌·더치·셸과 合作投資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적인 시설확장에 나서 6만배럴의 증설인가 신청을 정
부에 냈다. 그러나 시설확장의 꿈은 깨지고 말았다. 그
것은 當時 国内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던 美
國系 메이저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얘기가
있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이때 구라파계 석유재벌인 셸
과 합작공장이 이루어졌다면, 73년, 79년도의 에너지
위기중 셸로부터 원유공급물량, 가격 등에서 많은 협조
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할 때 아쉬운 감이 있
다.

그 후에도 極東石油와 로얌·더치·셸은 시설확장을



◇ 極東石油(株) 釜山精油工場 全景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市場性에 대한 매력을 잃은 셀은 77년 6월 10일 합작계약을 취소하고 철수했다.

다시 民族資本으로 복귀한 極東石油은 77년 12월 資本金을 12억원으로 증자하고 78년 8월에 日産 1만배럴의 증설공사를 완공했다.

현 재 釜山精油工場에는 日産 1万배럴의 精油시설 이외에 潤滑유제조시설(日産 1천 4백 50배럴)의 시설을 갖고 있다.

또 附帶시설로는 68万배럴의 原油저장시설, 49만배럴의 제품저장시설과 폐수처리와 硫化수소가스 제거를 위한 公害防止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工場은 수첨탈황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無公害의 低硫黃 輕油(유황함유량 0.013%)와 디젤油(유황함유량 0.4%)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또 수첨탈황처리를 한 나프타를 재증류하여 無公害한 良質의 工業용 溶劑를 생산하고 있다.

極東石油은 지난 20여년간 潤滑유제조 전문메이커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알맞는 제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부단한 努力과 투자를 하여 왔다. 현재 國內 潤滑유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酸化리, 백토처리 등 工程을 제거함으로써 기대되는 公害防止와 로스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최신 기술의 潤滑유제조시설을 완비하여 가동하고 있다.

極 東石油은 현재 美國의 게티·오일을 통해 中東의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 中立地帶産原油를 하루에 약 1만배럴씩 도입하고 있는데 油種은 Wafra와 Eocene이 主宗을 이루고 있다. 極東石油은 지금 내일의 도약을 위해 勞使가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하고 있다. 지난 해 1월 24일 動資部로부터 日産 6万배럴의 原油精製시설증설인가를 드디어 얻은 極東石油은 오는 84년 12월말 完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尙山청과 釜山市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용호동 에너지단지에서 이미 15만坪의 부지를 확보하여 올 하반기부

터 해수면 매립공사와 함께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들어간다는 것이 金丙寬工場長의 설명이다. 이에 대비, 극동석유는 拂入資本金을 有償 및 無償增資를 통하여 120億원으로 증자했다.

또 이번 증설공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자재에 있어서도 프로세스 펌프는 국산제품을 쓰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原油탱크는 지하탱크를 만들 계획인데 張洪宣社長이 작년 10월 스웨덴의 지하동굴저장시설 전문메이커인 SENTAB社를 방문, 건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우리 나라 第2의 생활권인 釜山지역에 정유공장을 갖고 있는 極東石油은 원활한 油類공급 면에서 많은 利點을 갖고 있다. 우선 燃料유, 潤滑油, 아스팔트와 같은 제품이 주로 釜山지역에서 거의 소비되기 때문에 수송비가 절감되고, 또 人力 확보가 수월하다. 또 종업원들이 대부분 시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제공 문제가 별로 없어 이 자금을 복리후생비 및 생산비에 투입할 수 있고, 보수유지비도 저렴하다.

極東石油은 종업원의 후생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기

울이고 있다. 張洪宣社長은 수시로 釜山工場에 내려와 종업원들과 격의없는 對話를 나누며, 다과회 혹은 저녁 식사 등을 같이 하면서 애로점을 듣는다. 그리고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은 적극 지원하고 있다. 金工場長은 張社長이 釜山工場에 올때마다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묻고, 복리후생에 관한 건의는 가급적 거의 다 들어준다고 말한다.

張社長은 그의 勞使觀을 이렇게 설명한다. 『企業의 유지발전과 사회적 責任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社員 個個人의 경영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함에 있어서 社員 各個人이 최선을 다하여 함께 생각하며, 맘을 흘리는 全員참가의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社員복지의 원천은 生産性向上에 있다. 生産성 향상을 통해 일하는 보람이 있는 직장을 스스로 만들고, 勞使가 협조하여 복리를 증대시킴으로써 崇高한 이상과 신뢰로 뭉쳐진 강력한 人間集團을 형성한다』

極東石油은 지난 77년 3월 후생복지 최우수 업체로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極東石油은 지금 내일의 웅비를 향해 勞使가 땀을 뭉쳐 매진하고 있다. *

◇ 極東石油 製品의 出荷施設

